

'사학법 재개정' 또 무산... 3월 국회서 통과될까

개헌 발의 맞물려 처리 미지수

극적 돌파구를 찾는 듯했던 사립학교법 재개정이 또 다시 좌초됨에 따라 주택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가 기대됐던 2월 임시국회는 결국 빈 수레가 요란한 꼴이 됐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뜨거워 감자인 사립학교법에 손을 떼면서 주택법 등 주요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공정거래법 등 주요 민생법안들이 한 묶음으로 3월 임시국회로 넘겨진 것이다.

이는 일단 파국을 피하면서 냉각기를 가져보자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공통된 상황 인식에 맞아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민생법안도 순탄치 않을 듯

이날 오전 협상 테이블에 앉은 양당 원내대표가 민생법안의 회기 내 처리 여부를 놓고는 공방을 벌였지만 사학법 재개정 협상을 유보하고 3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한 점은 이를 반영한다. 그러나 주택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정치권은 민생 입법에 소홀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주택법 개정안의 시행시기가 9월이라는 점에서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법안의 상징성과 부동산 시장에 주는 '신호'를 감안할 때 조속히 처리돼야 할 법안이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특히, 정부와 정책공조를 하는 우리당의 입법 추진 능력도 문제이지만 원내 일당의 지위를 가진 한나라당이 사학법과 사실상 연계하는 전략을 취하면서 주택법 개정안 처리에 소극적이었던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3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법안 처리도 녹록치 않다.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놓고 한나라당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이 의사진행발언 도중 노무현 대통령을 "니네"로 비하하자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 모임 의원들이 의정석까지 나와 이의원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 열린우리당이 벌써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참여정부의 개헌안 발의도 3월 국회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정부가 '4년 중임제' 원 포인트 개헌안을 오는 20일을 전후해 국회에 제

"국민 우롱처사" 비난

출할 경우, 사학법 재개정 협상은 더욱 꼬일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개헌안에 우리당이 분위가 조성에 나설 경우 한나라당이 이에 반발, 사학법 재개정 대립이 더욱 첨예하게 펼쳐질 가능성이 크며, 이

와 함께 각종 민생 법안이 뒷전으로 밀릴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3월 임시국회는 개헌안 발의가 카운트 다운에 들어감에 따라 정국의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사학법 재개정은 물론 각종 민생 법안 처리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간에 민생법안 처리무산의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펼쳐졌다. 양당 의원들은 민생법안 이 통과되지 못하게 된 책임을 서로 전가했고, 국회 협상에서 배제된 통합신당추진모임은 양당을 짜짜야 비난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일해공원' 사태 국회조사단 구성 촉구

열린우리당 전남도당

열린우리당 전남도당(위원장 서갑원)은 6일 경남 합천 '일해공원' 사태와 관련 국회에 진상조사단 구성과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전남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한나라당 유력 대선후보가 지역감정 극복을 위한 삼합정치를 강조하면서도 경남 출신 국회의원들이 5일 '일해공원' 사태에 대해 "합천군의 고유사무로 당무와 무관하다"고 밝힌 것은 한나라당이 지역감정을 미끼로 '짜고 치

는 고스톱'을 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남도당은 "한나라당 정강정책에는 합리적 개혁에 대한 역사적 정통성과 법치주의를 수호한다고 돼 있음에도 당 지도부가 이에 반한 행동을 한 당원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납득할 수 없다"며 소속 단체장에 대한 출당요구를 요구했다.

전남도당은 "국회는 일해공원 조사를 꾸러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 문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민병두 "이명박 지지율 급락"

공약실현 의문·위증교사 의혹 등 원인

국결립의 경우 50.8%에서 44.8%로 6.0% 포인트 하락했다"고 예를 들었다.

그러면서 '급락'의 원인으로 ▲경부운하 등 앞으로 더 내놓을 카드가 없는 상황인 데다 이미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문제가 됐고 ▲경선 조기과일로 1년 가까이 싸우면서 레퍼토리가 뻥뻥 리그가 됐으며 ▲검증공방에서 대처가 불분명해 국민이 풀리는 법안도피, 위증교사의 의혹을 완전히 떨치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한나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여론 지지율이 최근 급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6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이명박 예비후보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며 "한때 50% 초중반까지 올라갔던 지지율은 이제 40% 초중반까지 급락했다"고 말했다.

그는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47.4%에서 41.9%로 5.5% 포인트,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경우 58.8%에서 44.2%로 14.6% 포인트, 한

민주당 '유령당원' 의혹 증폭

입당원서 뒤늦게 발견... "단순 사무착오"

하루만에 1,700명 무더기 등록 의문투성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거진 민주당의 유령당원 논란이 뒤늦게 입당원서 발견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민주당은 유령당원 논란이 당직자의 단순한 사무착오로 추정하고 있으나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아 오히려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6일 배기운 민주당 사무총장은 중앙당에서 기자와 만나 "오늘 오전 중앙당에서 유령당원으로 알려진 당원들의 입당원서가 발견됐다"라며 "조직국에서 입당원서를 분류하고 있는 상황이며 유령당원 문제는 단순한 사무착오로 드러날 것 같다"고 밝혔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도 "입당원서가 발견됐으나 진상조사단이 명백한 진실을 밝혀내기까지는 아직 시일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유령당원 논란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당 내외에서는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유령당원 사건이 발생한 지 수일 후야, 그것도 중앙당 조직국 사무실에서 입당원서가 무더기로 발견된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민주당 중앙당이 신규 가입된 당원들의 입당원서를 즉각 시·도당에 보내지 않고 당내에 보관한 점과 무려 1천700여명에 이르는 당원들이 단 하루 만에 등록된 점도 의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실제로 지난해 10월 30일 이후 민주당 서울시당이 신규 등록된 당원들의 입당원서가 없다고 중앙당에 수차례 항의한 적이 있다"며 "당시 중앙당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진상조사단의 활

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나 조사단에 현역의원들이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데다 현직적으로 기초적인 조사를 벌일 수밖에 없어 유령당원 문제를 종식시키려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국창근 전 의원은 6일 유령당원 문제와 관련 "당원들의 자긍심을 짓밟는 사건"이라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국 전 의원은 이날 전남도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지방선거 직후의 유령당원 명부 유출에 이어 발생한 이번 사건으로 민주당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국 전 의원은 도당위원장의 합의 추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시·도당 개편대회는 당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축제의 마당"이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유시민, 이번엔 '국민사기극' 주장

"국회·언론인·지식인이 가면 무도회 벌여"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지금 우리 국회와 정당, 언론인과 지식인들이 거대한 '국민 사기극', 또는 '가면 무도회'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장관은 이날 국정브리핑 기고문을 통해 "보수는 상대적으로 작은 정부를 옹호하며 진보는 큰 정부, 또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시행 첫 해에 11조 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돼야 할 기초연금제 법안을 발의하면서 동시에 국민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지난해 정국회에서는 민생파탄론으로 정부를 공격하면서 노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비를 1천억 원이나 삭감해 도로 건설 등에 투입했다"고 적시했다.

또 "민노당은 해마다 2천억 원 넘게 집행토록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고 자랑하면서도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담뱃값 인상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고 다른 재원조달 대책을

제시하지도 않은 채 마치 정부가 일부러 예방접종사업을 포기한 것처럼 비난한다"고 열거했다.

그는 이어 "신론 시장을 압도하는 보수신문들은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모든 노력을 '작은 정부론'으로 공격하고, 진보를 표방하는 신문들은 정부 지출의 증가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정책의 실시를 요구하면서도 세입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수단에 침묵하거나 심지어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뿐만 아니라 비난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나는 말한다. 이제 이 소모적인 국민 사기극을 결여 치워야 한다. '작은 정부론'을 옹호하는 정치인과 언론인, 지식인들은 정부 지출의 증가를 동반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일관성을 가져야 하고 최소한 그런 일을 저격 한다고 정부를 비난하는 것만이라도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유시민·이상수

"탈당 의사 없다"

박홍수 장관은 탈당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탈당에도 불구하고 우리당 당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앞서 자신의 당적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굳이 (정리할) 필요가 없다"면서 "그냥 있겠다. 대통령께서도 중립내각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고..."라고 답했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도 '당에서 요구하면 당적을 정리하겠다'는 최근 자신의 발언에 대해 "그 말은 원론적인 설명을 한 것으로 당이 요구한 것에 따른다는 일반적인 말을 한 것"이라고 언급, 자신의 탈당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당적을 가진 박홍수 노동부 장관은 이날 열린우리당을 탈당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공인중개사

EBS교육방송 지자직강 출제위원급 최고 교수진

3월 2일 첫진도 개강

제10회 주택관리사 시험대비
주택관리사
제8회 주택관리사 시험 광주지역 합격자 196명 중 본원출신 143명 합격!

전국수석 배출
전국최다합격자 배출

본원 227-8003 (구도청 앞 정일빌딩 뒤)
첨단점 971-0002 (비마트 첨단점 옆 광주은행 4F)

국비훈련생 모집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 과정)

주택관리사·공인중개사

지역사과과정(교육기간)	교육내용(교육시간)
공인중개사(월~토) 교육기간: 3/5~4/30	민법, 법령, 세법, 공시법, 부동산학개론, 공법 (19:00~22:30 *토 15:00~18:30)
주택관리사 주말반(토, 일) 교육기간: 5/5~7/1	민법, 회계관리, 관리법규, 관리실무, 사법개론 (*토14:00~18:00 *일 10:00~17:00)
주택관리사(월~금) 교육기간: 4/2~6/2	민법, 회계관리, 관리법규, 관리실무, 사법개론 (19:00~22:30)

기 타 사 항

- ▶도당대상 고등보훈에 가입중인 사업장에 근무 중인 재직근로자
- ▶가타사항: 수료후 100% ~80%환급
- ▶접 수: 수강필자: 훈련생담→훈련수강신청서 작성→훈련기관에 제출→수강

국가직/ 지방직 시험대비

www.mdgosi.co.kr

9급 공무원

문제풀이반 3월 5일 개강

김종규 행정학 문제풀이 특강

공무원 합격, 쉽고 빠르게!

- ▶ 교정공무원
- ▶ 소방공무원
- ▶ 세무공무원
- ▶ 사회복지직
- ▶ 보훈관할직
- ▶ 교육행정직

광주고시학원

2007년(上) 제 17기 한자·한문지도사 자격연수생모집

모집요강

- ▶ 모집기간: 2007년 2월 5일(월)~ 3월 10일(土)
- ▶ 개강일시: 2007년 3월 10일(土) 09:00, 서울 광주 대구 본원
- ▶ 지원대상: 2007년 3월 10일(土) 09:00, 서울 광주 대구 본원
- ▶ 모집인원: 1단계 과정: 20명, 2단계 과정: 20명, 3단계 과정: 20명
- ▶ 수업기간: 2007년 3월 10일(土)~2007년 6월 25일(土) 14주, 15주간
- ▶ 수업시간: 주일반: 오전 9시~14시, 오후반: 14~19시 → 주 1회 수강
- ▶ 수강료: 1~4 단계 각 30만원, 2~3 단계 겸합과목 10만원 별도

▶ 접수처: 광주광역시 광안로 763-6 호반2차상가 2층 (첨단단지)

▶ 수강 및 졸업의 특징

- ▶ 학교내부 교육용 한자·한문지도사·수강생
- ▶ 100% 합격률 보장
- ▶ 100% 취업률 보장
- ▶ 100% 장학금 지급
- ▶ 100% 장학금 지급

제 7회 전국 한자안문 3·2급 지도사 자격 검정시험 응교

- ▶ 일시: 2007년 7월 7일(土) 15:00
- ▶ 장소: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대강당 및 전국시도본부
- ▶ 접수기간: 2007년 5월 28일(수)~6월 16일(수) *응시자격: 국민연금·공시가능
- ▶ 응시교과: 3급지도사: 1단계 70문제/2급지도사: 1, 2단계 100문제

▶ 시행 및 주관: 한자한문 지도사 자격인준회 ▶ 후원: (사)한국한문교육연구원, (사)국어고전문학회

광주지역본원 062)971-4747, 972-4747, FAX.973-4747 (01)973-4477, 휴.017-610-9393, 017-609-9393

현대직업전문학교

224-4560, 224-4580, 232-1088

*위치: 전남고 2~3년 김재규 경찰학원 3층 *http://www.hdaedu.co.kr

무등고시학원

www.kjkimyoung.co.kr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성공신화는 계속된다

2008년 현업시험 대비반 개강(기초과정)

= 개강: 3월 5일 =

김윤신 초등교육과정 개강 3월 5일(월)

의치의학, 한의학 전문대학원 대비반 개강

개강과목: 영어/영어추론/생물/화학/유기화학/한문/한의학

김영대학면임학원 광주부경실사 227-0088